

브라질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7
V. 종합 의견	9

I. 일반개황

면적	8,516천 km ²	G D P	17,726억 달러 (2015년)
인구	204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8,670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Real (BRL)
대외정책	실리주의	환율(달러당)	3.33 (2015년)

-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GDP의 35.5%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, 서비스업 72%, 제조업 22%, 농업 6%로 산업구조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음.
- 커피, 오렌지, 설탕, 대두 등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한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이며, 알루미늄, 금을 비롯한 광물자원과 다량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.
-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(UNSC) 상임이사국 등록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제성장률	1.9	3.0	0.1	-3.9	-3.3
소비자물가상승률	5.4	6.2	6.3	9.0	9.0
재정수지 / GDP	-2.5	-3.0	-6.1	-10.3	-10.4

자료: IMF.

□ '15년에 이어 '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

- 브라질은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('15년 63.4%)이 높은 내수 중심 국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던 2011~12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였고, 이후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여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실업률 증가('14년 6.5%→'15년 9.0%)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,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·통화정책의 영향으로 -3.9% 성장을 기록하였음.
- 2016년에는 주요수출품 가격 상승*,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증대,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-3.3%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* '16년 상반기 주요 수출품인 대두, 옥수수 철광석의 국제가격 약 25% 상승

□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

-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(현재 14.25%)하는 적극적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4.5% 수준으로 설정하였음.
-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헤알화의 가파른 가치 하락('14년 달러당 2.35 →'15년 3.33)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, Petrobras의 '14년 11월 가격인상(가솔린 3%, 디젤 5%)등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9.0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.

- **사회보장부문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규모 지속적 확대**
 - 2015년에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높은 연금지급 인상률 등 사회보장부문 지출 증가,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0.3%를 기록하며 전년(6.1%)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됨.
 - 이에 '16년 8월 출범한 新정부는 정부지출 증가 억제, 국영기업 매각 및 연방정부 부처 축소를 통한 재원 마련,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며,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도 '15년과 유사한 10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- **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투자율 등으로 경쟁력 저하**
 - 브라질 경제는 2015년 기준 서비스업 71.9%, 제조업 22.2%, 농업 5.9%로 구성되어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9.2%(2015년 기준, 중남미 평균 22.2%)에 불과함.
 - 세계경제포럼(WEF) 2016-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문에서 '15년 기준 138개국 중 72위(도로 111위, 항만 114위, 철도 93위)에 그치는 등 인프라 수준도 열악하여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- **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**
 - 브라질의 GDP 규모는 2015년 기준 세계 9위, 중남미 1위(중남미 전체 GDP의 35.5% 점유)이며,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63.4% 및 2억 명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과 '15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69.1%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.

□ 농작물, 광물, 석유 등 풍부한 자원 보유

- 브라질은 커피, 오렌지, 설탕, 대두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곡물수출국이며, 69종의 광물자원(철광석, 알루미늄, 금 등)과 함께 석유* 등 에너지자원 매장량도 풍부함.

* 2015년 BP(British Petroleum)의 세계에너지통계에 따르면 2015년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130억 배럴로, 중남미 국가 중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 규모

다. 정책성과

□ 과중한 세금 부담과 비효율적 행정절차는 기업에 추가 비용 초래

- OECD 국가에 준하는 과중한 세금부담('15년 GDP 대비 33.1%),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법,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은 기업 영업활동에 경제적 부담('Brazil Cost')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세계은행의 2017 기업경영여건 평가(Doing Business)에서 브라질은 190개국 중 123위에 불과함.

- 이는 멕시코(47위), 콜롬비아(53위), 칠레(57위) 등 주요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순위이며, 세금납부(181위), 창업(175위), 건설허가 취득(172위)의 경우 최하위권을 기록함.

□ 재정지출 억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추진

- 테메르 新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32개의 연방정부 부처를 22개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4,307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임.

- 또한, 민관협력(PPP)을 통한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해 '투자협력프로그램*'을 마련하고 '브라질 코스트'의 대표적인 요소인 노동 및 세제 부문 개혁**을 추진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* 6개 부처 장관과 3개 국영은행의 총재가 참여하며, 교통, 물류, 식수, 위생,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민영화, 민관협력 등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

**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, 명확한 아웃소싱규정, 과다한 세금 종류 축소 등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 상 수 지	-74,218	-74,839	-104,181	-58,882	-14,109
경 상 수 지 / G D P	-3.0	-3.0	-4.3	-3.3	-0.8
상 품 수 지	17,420	389	-6,630	17,670	40,073
수 출	242,283	241,577	224,098	190,092	195,177
수 입	224,864	241,189	230,727	172,422	155,104
외 환 보 유 액	369,566	356,214	360,965	354,175	360,819
총 외 채 잔 액	575,758	621,307	712,518	668,068	688,320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3.4	25.2	29.5	37.7	44.9
D S R	20.5	26.3	31.6	48.6	49.1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상품수지 흑자 기조로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 전망

- 상품수지 흑자에도('14년 제외)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2008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,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-4.3%를 기록함.
- 2015년에는 수입 축소로 상품수지가 다시 흑자 전환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-3.3%로 축소되었고, 2016년에는 대두 등 주요 수출품목 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-0.8%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채잔액 및 D.S.R. 증가 추세로 외채건전성 적신호

- 마이너스 성장과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5년 37.7%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외채원리금 상환비율(D.S.R)도 급격히 증가('12년 20.5%→'15년 48.6%)하는 등 외채건전성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□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의 완충 역할 담당

- 2015년 기준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3,542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액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이며,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 다소 완화

- '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(Dilma Rousseff)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(Michel Temer)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 되었음.
- 하지만 테메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('16년 9월 기준 14%)은 '14~'16년 이어진 경기침체의 지지부진한 회복과 함께 개선이 희박해 보이며, Petrobras 비리* 조사 결과에 따라 내각 장관 및 테메르 대통령 본인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.
- * 브라질 최대 및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사업상 이득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활용, 장기간 정·관계에 뇌물과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으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되었음

□ 테메르 대통령 재선 불확실로 '17년부터 레임덕 예상

- 호세프의 잔여 임기('18년 12월 31일)를 이어받은 테메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인해 재선이 불투명함에 따라 '17년부터 레임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'18년 10월에 열리는 선거에서 테메르 정권과 같은 성향의 중도 우파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부분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 사태

□ 반부패법 처벌 규정 완화 움직임에 따른 테메르 퇴진 시위 예정

- 하원은 반부패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, 반부패법 특위 위원 절반 이상이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정치권에서 선거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됨.
- '자유브라질운동' 등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반부패법의 일부 처벌 규정을 완화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, 좌파 진영(PT 등)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사회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득불평등 및 불안정한 치안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-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등으로 일소득 1.9달러 이하 인구 비중은 2001년 13.6%에서 2014년 3.7%로 크게 감소하였으나, '14년 지니계수가 51.5로 집계되어 소득불평등 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.
- 아울러 세계경제포럼의 2016-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lobal Competitive Index)에서 브라질은 138개국 중 범죄, 폭력으로 인한 사업 손실 지수 129위, 조직범죄 지수 120위를 기록하며 치안 불안으로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테메르 新정부는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표방하며 실리주의 추구

-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(UNSC) 상임이사국 등록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테메르 新정부는 세하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, 기존의 보호주의 기초에서 벗어나 같은 중도 우파인 아르헨티나 정부와 함께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.
- 또한, 멕시코, 인도, 중국 등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미국과의 무역협정도 추진 중이나 트럼프 당선 이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,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낮은 연체비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

- 브라질은 외채위기로 6차례(1961, 1964, 1983, 1987, 1988, 1992년) 파리 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 전액 상환하였으며, 2005년 12월 IMF 차관 잔액을 조기상환하면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었음.
- 한편, 2016년 9월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363억 달러(단기 61억 달러, 중장기 302억 달러) 중 연체액은 2억 달러로 0.5%에 불과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5등급 (2016. 10.)	4등급 (2015. 10.)
Moody's	Ba2 (2016. 2.)	Baa3 (2015. 12.)
Fitch	BB (2016. 5.)	BB+ (2015. 12.)

- 2016년 2월 Moody's가 브라질에 Ba2의 신용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주요 신용평가사(Moody's, Fitch 등) 모두 투자 부적격 등급을 부여*하였으며, OECD도 2016년 10월 채무상환비율 증가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하향조정 하였음.

* Fitch는 2016년 5월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BB+에서 BB로 한단계 추가 하향 조정 하였음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59년 10월 31일 (북한과는 2001년 3월 9일 수교)

□ 주요협정 : 무역협정(1963), 문화협정(1967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91), 범죄인 인도조약(2002), 사증면제협정(2002), 국방협력협정(2008), 사회 보장협정(2015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 : 2016년 9월말 기준 272건, 7,141백만 달러 (누계 기준)

□ 교역규모

<표 4> 한 · 브라질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10	주요품목
수 출	9,688	8,922	5,495	3,684	자동차부품,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
수 입	5,573	4,907	4,059	2,866	철광, 식물성물질, 곡실류
교역규모	15,261	13,829	9,554	6,550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나,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,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증대,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기대감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-3.3%로 전망됨.
- 높은 연금지급 인상률,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新정부의 지출 억제와 사회보장부문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'16년도 전년과 유사한 -10.4%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호세프 대통령 탄핵 후 테메르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낮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으며, 반부패법 처벌 규정 완화 등의 사유로 시민단체의 탄핵시위 및 좌파 진영의 공세가 예상된다.
- 경기침체 지속, 재정수지 적자 누적,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,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외채비중,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이기성(☎02-6255-5712)
E-mail: ks.lee@koreaexim.go.kr